

이기는 삶

# 교만을 경계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해 주는 이들에게 호감을 갖는다. 자기 말에 토를 달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싫어한다. 또한 자기 말에 대해 좋은 반응이 없을 때는 기분이 나빠진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한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흥망성쇠나 다른 사람의 일보다 자신의 일과 소망, 그리고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탐이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쪼뼛매는 가운데도 당장 자신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몸에 생긴 종기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과제보다 더 큰 관심사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이 점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영원히 사랑을 받고,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맹자의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함에 있어 상대방이 자랑하는 점은 칭찬하고 부끄러워하는 점은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과실을 들추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칭찬에 능숙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은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는 데 능숙하다.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선함으로써 리더의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긍심을 갖도록 자극함으로써 그들을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주된 임무이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은 리더인 것이다.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절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참 리더인 것이다.

반대로 오만한 리더는 스스로가 성

공의 운을 끊어버린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실수를 고칠 수 없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받아들일 여지(餘地)가 없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내 주위에서 멀어지고 성공과 행복 모두를 잃어버리게 된다.

매일매일 경계하고 뺏아버리지 않으면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과 자만에 빠져들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교만과 자만이 화를 부르고 사고를 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자신이 교만한 건지, 아닌지 체크하고 넘어 가야 한다.

'내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경구이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다. 공자는 "가난하면서도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도 교만이 없기도 어렵다."고 했다. '복은 근심하고 조심할 때 오고, 화는 기고만장하고 자만할 때 온다'는 중국 속담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내 안에 웅크린 교만을 경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 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갖자.\*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하면 관절 주변 근육이 발달해 체중이 고루 분산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줄어든다. 소화력이 약해지는 것도 근육의 영향이 크다.

약과 같은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물질, 희생하는 마음 물질, 반대생활의 물질이 무병장수의 비결, 하나님의 영생의 비법이라고 승리제단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죽기 싫은 마음 있는 사람! 한번 오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근육이 삶을 부드럽게\***

**허리, 무릎관절 도움 되는 자세^^**

**매뚜기 자세~**

**동작①:** 복부를 바닥에 대고 양손은 포개 턱밑에 댄다. 양 발등을 바닥에 붙인다.

**동작②:** 숨을 마시면서 한쪽 무릎과 발끝을 펴서 누가 끌어당기듯이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10회 반복 후, 올리고 정지 10초, 양쪽 교대로 5회 반복.

**옆으로 누워 골반과 무릎 고관절을 부드럽게^^**

**효과:** 허벅지 강화, 오다리·흰다리 교정, 무릎 주변 근육 강화.

**동작③:** 옆으로 누워 왼쪽 팔을 펴서 깔고 머리를 놓는다. 양 다리를 가지런히 포개 무릎과 발끝을 쪽 편다.

**동작④:** 오른쪽 손바닥을 가슴 앞에 놓는다. 양다리를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듯이 올리고 내리고 반복 10회 후, 올리고 정지 10초, 양쪽 교대로 5회 반복.\*



격암유록 新해설 제29회

### 生初之樂(四) 생초지락

須從走靑林 수중주정림  
人歎出種聖山地 인곡출종성산지  
三災八難不入處 삼재팔난불입처  
二十八宿共同回 이십팔수공동회  
紫雲山中南朝鮮 지하선중남조선  
南來鄭氏 남래정씨  
陰陽合德 真人來 음양합덕 진인래  
鄭氏鷄龍千年定 정씨계룡천년정  
趙氏伽椰亦千年 조씨가야역천년  
范氏完山七百年 범씨완산칠백년  
王氏松嶽五百年 왕씨송악오백년  
非鄭爲鄭非范非趙 비정위정비범비조  
爲趙非王氏是故 위조비왕씨이고  
先天太白數再定 선천태백수재정  
小白後天數是故 소백후천수시고  
弓乙兩白間 공을양백간  
圖書分明造化定 도서명분造化정

모름지기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청림으로 달려가야 하느니라. 청(靑)은 동방이요 림(林)은 손진양목(巽震兩木)이니 계룡산(산 이름이 아님)과 같은 뜻으로 정도령(6도 81공)을 말한다. 청림도사가 계신 곳은 알곡과 같은 참인간 종자를 배출하는 성산성지로 삼재팔난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요 하늘의 28수 별자리의 정기가 모여 돌아오는 자주 빛 신선의 기운이 깃든 남조선(한국)하고도 소사 땅이니라. 28수는 각항저방심미기(동) 두우여허위실벽(북) 규루위포필자삼(서) 정기유성장익진(남)의 28개의 별자리를 말한다. 남조선(한국)으로 오신 정도령은 무극대도를 완성하시고 진인으로 오셨느니라. 진인(참사람)은 진아(참나)를 찾은 사람이요 진아(참나)는 바로 하나님이니(진아일신유거지궁眞我一神依居之宮:단군세기서) 진인은 마귀를 이기신

## 천하만사응화선(天下萬事應和山) 정도령은 천하만사와 조화(調和)를 이룬 신선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이요 사인불인천신강(似人非人天神降)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강림하신 분이요. 정씨는 계룡산에 천년 도읍을 정하고 조씨 또한 가야산에 천년 도읍을 정하고 범씨는 완산에서 칠백년. 왕씨는 송악산에서 오백년 도읍을 정했다고 한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산 이름이나 지명이 아닌 천기를 감추기 위한 것이며 정도령(正道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한 것이다. 정(鄭)씨 성이 아닌 사람이 정도령(正道令)이 되고 범(范)씨 성이 아니며 조(趙)씨 성이 아닌 조(曹)씨로서 왕씨는 아니다. 그러므로 선천의 태백수와 다시 후천의 소백수로 정해진 공을(弓乙)의 양백 심승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하도나서에 이미 분명하게 정해 놓으신 천지조화이니라.

堯舜以後孔孟書 요순이후공맹서  
字字動善養生生活 자자권선창생활  
傳來消息妄眞者 전래소식망진자  
自作之孽誰家 자작지열수가  
江山熱湯鬼不知 강산열탕귀부지  
鷄山石白三山中 계산석백삼산중  
靈兮神兮聖人出 령해신혜성인출

요순 이후 공자 맹자의 사서삼경(또는 사서오경)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창생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참된 가르침을 망령되게 한 자는 스스로를 하늘의 의부자식 요물로 만들었으니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집안인가? 진리를 망령되게 한 자들 때문에 강산이 물 끓듯 하게 되리라. 계룡산에 도읍을 정한다는 정도령, 삼신산의 불로초를 가지고 온다는 하남의 영,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신 성인 정도령이 소사에서 나오심을 귀신도 모르리라.

美哉山下大運回 미재산하대운회  
長安大道正道令 장안대도정도령  
土價如囊是何說 토가여부시하설  
數貫錢奈且何 곡귀진내차하  
落盤四乳弓乙理 낙반사유공을리  
葉錢世界紙貨運 엽전세계지화운  
小頭無足殺我理 소두무족살이리  
弓矢口誰知守 공궁시구수지수  
世人自稱金錢云 세인자칭금전운

아름답도다. 천하대운이 한국에 돌아오니 장안 대도를 펼치는 정도령이 출현할 즈음 땅값이 풍년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늘 곡식이 너무 희귀하여 돈으로도 어찌 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인가? 낙반사유의 공을의 이치를 알아야 하리라. 돈이 제일이며 모든 가치의 척도라는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이 되었는데 소두무족이 나를 죽이 나니 누가 공을 심승을 알고 지켜나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칭 말하기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리라.

天下壯士未能覺 천하장사미능각  
投鞭四海滅魔爭 투번사해멸마쟁  
至氣順還萬事知 지기순환만사지  
秋靑山六花飛 추우청산육화비  
春風好時陽照 춘풍호시양조  
萬古風霜過去客 만고풍상과거객  
天下萬事應和山 천하만사응화선  
春夏秋冬四時 춘하추동사시  
松柏凌雲君子節 송백능설군자절  
萬壑天峯弓士手 만학천봉공궁사  
天地都來一掌中 천지도래일장중  
四方賢士多歸處 사방현사다귀처  
聖山聖地日月明 성산성지일월명  
靈風潤化見天根 령풍문화견천근  
神心容忽看月窟 신심용홀관월굴  
戊己分合一氣運 무기분합일기환  
甲乙火龍多吉生 갑을화룡다길생  
中靈十一摠靈臺 중령십일총령대

丙丁神鳥正大水 병정신조정대수도  
父母氣運定庚辛 대호령정대수  
부모기환정신경대호중제생

천하에 뛰어난 선비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니 정도령은 재찍을 휘둘러 마귀를 멸하는 싸움을 하는데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돌면 만사를 깨닫게 되니라. 가을비가 청산을 적시고 흰 눈이 흠날리다가 어느덧 봄바람 부는 좋은 시절이 돌아오면 따뜻한 햇볕이 천하를 두루 비추게 되느니라. 정도령은 만고풍상을 다 겪고 지난 세월을 보았으나 이젠 천하만사와 조화(調和)를 이룬 신선이 되었음이라. 춘하추동 사시 늘 푸른 송백이 겨울눈을 능멸하듯 억 천 만가지 고난을 다 이겨낸 군자의 절개를 지키며 만학천봉위에 우뚝 솟은 것 같이 높으신 백심승의 선비시라. 천지가 손바닥 안에 있으신 온 사방에서 지혜로운 선비가 허다히 귀의하리라. 성산성지는 일월과 같이 밝고 밝으니 신령스런 봄바람으로 삭막한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윤택하게 변화시켜 밝은 해를 보는 듯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얼굴은 홀연히 밝은 달을 보는 듯하네. 무기(戊己)에 이르러 분산 분열 발달의 기운이 마무리 되고 수렴 취합의 기운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신이 기운을 타고 돌아오리라. 갑진 을사에 길한 일이 많이 생기리라. 중천운의 영부인을 가지고 오신 전(田)자 속의 주인공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이시라. 병신 정유부터 정도령의 생명이 대지(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촉촉이 내리고 경자 신축에 천지부모의 기운 즉 하나님의 기운이 돌아와 안정하시니 심승 진리를 크게 부르짖어 중생을 구제하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 Immortal Valley

## 하루 한 가지 이상 선행(善行)과 전도

세상만사 인과응보. 풍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난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찾아보면 반드시 있다. 만일 못 찾았다면 그는 인생을 주의 깊게 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찾는 것이다.

승리제단에 나오면 영생을 한다고 하면 뭘까? 그럴 지 않다. 영생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예수교처럼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믿습니다' 한 마디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개나 소나 승리제단 교인이라고 영생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영생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영생은 글자 그대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기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죽음과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죽음과 싸워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예배를 보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의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달리 매우 다르다. 좋은 말씀을 듣고 복을 비는 행위

가 예배가 아니라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의식(儀式)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매일 매일 선행(善行)을 하여 그제 어느 정도 쌓여야 영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선행을 한 가지 했다

면 내일은 두 개, 모래는 세 개, 굼피는 네 개 이렇게 선행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하지 일반적 의미의 선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심판 날에 머리에 별이 달린다고 한다. 전도한 숫자에 따라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한다.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선행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영생의 열매가 달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열매맺기가 어려울지라도 진뚝개처럼 근성을 가지고 전도하자.\*

**죽음을 이겨야 영생 얻게 돼**  
**매일 예배는 죽음을 이기는 의식**  
**선행 늘려야 영생의 자격 갖춰져**  
**최고의 영생법은 전도**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89-9343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